

## 일본영화와 일본인의 자기 인식

-누벨바그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 영화를 보면서 시대마다 일본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상(생활양식적 접근)과 이데올로기적 영향(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인의 긍정 부정적 자기인식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자기 인식은 개화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후 등 외적 요인에 따른 부정과 긍정의 교차가 특징이다. 이것은 상대적 인식이 익숙한 일본인들이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영화의 초창기(메이지기)에 일본영화는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에 부응하는 일본의 특이한 단면-게이샤, 가부키 등을 소개했다. 당시 일본인들은 전체적으로 일본인 열등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바라봤다. 제1의 황금기라 불리기도 하는 성숙기에는 영화 속에서 전통과 현실을 접목하는 자기인식의 길목에 있었다. 즉 자신의 상대적 고유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전쟁기에 일본영화는 민족적인 긍정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배타적인 영웅 캐릭터를 주로 사용하였다. 자기 인식면에서도 '무사도'와 '야마토타마시'로 대변되는 파시즘적 일본인론이 우세했다. 전후 민주주의 시기에 이르러 루스베네딕트의 저서 '국화와 칼'을 계기로 일본인의 부정적 특수성이 강조되었다. 전후 회복기인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누벨바그세대는 일본영화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의 인내, 눈물, 정서의 강조를 비판하고, 생존을 위한 민중의 투쟁과 주체를 강조하며 자유로운 감성, 인물의 입체성과 역동성 등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일본은 경제적 회복을 이끌어내며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며 역사적 상대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후 영화계는 안방극장에 밀려 산업적 몰락을 겪으며 그 탈출구로써 야쿠자 영화와 핑크영화 등의 장르영화를 제작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일본인 스스로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적하며 정체적 혼란기를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화에서도 하이브리드적 경향을 보인다.

영화가 시대를 반영한다는 인과성보다는 일본의 생활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싶다. 특히 영화는 캐릭터를 통해 당시 일본인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인물상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인들의 긍정/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Q&A;

**Q:**전쟁기 영화감독들의 3가지 대응 방식(전쟁선전영화제작, 시대적 사조와는 관련 없는 영화제작, 근검절약과 정신수양을 강조)의 분류에 무라타 타케오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A:** 세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감독들도 소수 존재한다. 카메이 후미오 감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선전하는 영화를 만들도록 했으나 중국진군을 하는 일본군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을 영화에 담았다. 이들은 전후 시대에 영향력이 강해졌지만 전쟁기의 감독들을 분류하기에는 너무 소수였다.

**Q:** 영화[24개의 눈동자]를 보면 전쟁에 대해 부정하지만 결국 일본 스스로 위안하는 일본의 전후 인식이 드러난다. 일본의 전후인식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A:** [24개의 눈동자]에서는 정말 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피해자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전쟁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갖지 못하고 전쟁이라는 사건에 대한 한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책임 없는 피해의식은 1950년대 후반 많이 나타났다. 그 후 누벨바그 세대 감독들은 책임론의 실종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츠모토 토시오의 주체 논쟁으로 잘 알 수 있다.

**Q:** 일본영화는 전쟁이전까지 사쿠라 가부키 게이샤 등 에로틱하고 여성적인 면을 강조해왔다. 전

쟁 중 남성적 면을 강조하는 이미지 전환을 위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A:** 일본영화는 전쟁 중에 근검절약과 정신 수양 그리고 영웅적 인물상을 강조했다. 이태리에서도 백색전화 영화라고 하는 화려한 이미지는 모두 금지되었었다. 특히 현재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구라마 텐고라든지 주신구라 등 영웅 캐릭터들은 대부분 전쟁 중에 만들어 진 것이다. 영웅 인물상의등장이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이다.

**Q:** 일본인론의 변천과 영화의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미 종결이 된듯한 이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A:** 일본영화의 주인공들은 이상형으로써 일본인들에게 제시가 되었다. 일본의 스타 [이시하라 유지로]는 어두운 전쟁 시기에 깔렁깔렁한 밝고 적극적인 청년을 연기함으로써 당시 스타로 등극했고 사람들의 이상형이 되었다. 또 현재 일본은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일본인론을 연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Q:** 전쟁 중 식민지 대상 영화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A:** 일본은 식민지였던 만주와 조선에 만주영화주식회사와 조선영화주식회사를 세워 전쟁 양양영화를 다수 제작했다. 일제의 희망적인 모습과 같이 싸워야 할 공동의 대상을 제시하는 등 일제 선전의 장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요소 이외에 영화인들의 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만.영이나 조.영에서 일했던 스텝들이 전후에 돌아와 많은 영화를 제작했다.